



착한 목자 예수님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13,14.43-52

[화답송] 시편 100(99),1-2.3.5 (◎ 3c 참조)



(후렴)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제 2 독서]..... 요한묵시록 7,9.14L -17

[복음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27-30

[성가안내]

-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 파견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이 영우, 이 태묘 이 철우 스테파노 이 정진 안토니오 심 재갑 이 만제 원 광남 김 주옥 마리아	가족 이 상홍 스테파노 오 병민, 이 가을 한 동훈 익명 이 지훈 아네스 이 지훈 아네스 서 경자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이 미진 조앤 그레이스 이 영애 레지나 오 승국	한 동훈 이 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정 봉애 카타리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5월 8일	이영노 울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이영혜 안젤라	정동주 유스토	김은아 미카엘라
5월 15일	백이백 아오스딩	김규현 프란치스코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지훈 아네스	장동환 헨리코	김하나 미리암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5. 2 아타나시오 5. 3 필립보 5. 3. 작은 야고보
- 5. 14 마티아 5. 15 파코미오 5. 22. 리따
- 5. 26 필립보네리 5. 31 엘리사벳

● 연례회 월례회의

- 오늘, 5월8일 미사 후 11시 교육관 1B

● 청년 미사 5월 14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원 모집

- 문의 : 정동주 유스토 부장 917-750-6432
- 김승현 마리아부부장,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부부장, 신부님

● 청년 레지오 'Zoom'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25주년 기념 '사랑의 나눔 바자회'

- 일 시 : 6월 5일
- 각 단체들과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동북부 제78차 ME 부부 주말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2022년 5월 28일 ~ 30일
- 장 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롱 아일랜드)
- 참가비 : \$100
- 신청문의 :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철순 스테파노 부부
646-322-3484 Chriskim04@gmail.com

●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처' 강의

- 시 간 : 5월 15일 주일 미사 후
- 장 소 : 다미아노 홀
- 강 사 : 한국인 강사 (프란치스코회 이민사목 담당 줄리안 신부님께서 주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천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뉴욕 대교구 분담금 자유로이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분담금입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성모 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A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2층 컨퍼런스룸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4:30pm	아랫성당

[2022년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젊은이들이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주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오늘의 복음 묵상

(요한 10,27-30)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은 '성소(聖召)주일이나 착한목자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사제나 수도자로 사는 사람들과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신앙인인 사람들이 특별하게 행동하자고 권고하는 날이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켜보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소주일(聖召主日)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아주 큰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 각자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삶의 응답을 살피자는 의도가 있는 표현이고, 착한목자주일이라는 표현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구원자요, 착한목자로 사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제와 그 일에 협조하는 수도자의 삶을, 양의 입장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따르는지 함께 돌아키자고 권고하는 표현입니다.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앞에 나서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을 어떻게 부르든지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는 세상을 채운 사람들에게 세상 삶의 주도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면 내 맘대로 모든 것을 다 이를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것까지도 내가 돌봐야 하는 힘겨운 일의 한 가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독서의 말씀은 지금의 터키의 한 가운데쯤에 있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복음을 선포한 바오로의 일행에게 유대인들 몇 명이 훼방을 놓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바오로와 사도들에게 그들의 일을 왜 훼방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유대인들이 가졌을 삶의 의도를 전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현실 삶을 거기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과거에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났으면서도 자기들의 현실을 기쁜 자세로 대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삶은 분명히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응답한 성소자(聖召者)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사도들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도들에 대한 것은 둘 중의 한가지일 것입니다. 기쁨을 잘못 드러내고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은 사도들의 정신상태가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드러내던 자세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축복에 참여할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울리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해서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 사실에 관한 것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목민의 사회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까이하는 동물들에 양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사회의 풍습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잘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풀이하는 성소(聖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 큰 범위를 좁혀서 사제와 수도자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고 알려주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